

중국의 제조업 발전 현황과 한국의 대응방안

- 이현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동북아경제본부
중국팀 부연구위원
htlee@kiep.go.kr
- 최장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동북아경제본부
통일국제협력팀 부연구위원
choi.j@kiep.go.kr
- 최혜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거시금융본부
국제거시팀 부연구위원
hlchoi@kiep.go.kr
- 김영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동북아경제본부
중국팀 연구원
youngsun@kiep.go.kr
- 오윤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동북아경제본부
중국팀 연구원
ymoh@kiep.go.kr
- 이준구**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joonkee@hanyang.ac.kr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뉴노멀 시대의 중국경제가 산업구조 고도화를 강력히 추진하는 상황에서 중국의 제조업 발전 현황과 정책을 분석·전망하고 대응책을 모색할 필요
 - 한국은 중국에 중간재를 수출하고 중국은 이를 이용하여 최종재를 생산·수출하는 상호 보완적 관계를 유지해 왔으나, 중국의 산업고도화에 따라 양국은 상호 경쟁적 관계로 급속히 전환되고 있기에 이에 대한 면밀한 분석 및 대응방안 도출이 절실
- 2015년 중국정부는 제조업 관련 정책인 ‘중국제조 2025’를 발표하고 중국 제조업을 새롭게 도약시키기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고 지속 추진 중
 - 2015년 5월 국무원이 공식 발표한 ‘중국제조 2025’는 제조업의 혁신능력 제고, 품질제고, 친환경 성장, 산업구조 최적화 등을 목표로 하며, 인터넷과 전통제조업 간 융합을 토대로 하는 스마트 제조업 발전을 지향하고 있음.
- ‘중국제조 2025’는 자원집약형 제조대국에서 기술주도형 스마트 제조강국으로 성장하려는 중국의 제조업 발전전략의 중심
 - 중국의 이러한 정책은 제조업 구조조정 및 혁신이 뒷받침되어야 중진국 함정을 벗어나 선진국이 될 수 있다는 중국정부의 판단과 의지를 반영한 것임.
 - 제조업 전체의 체질 전환을 목표로 하는 이 정책은 중국의 기술적 한계와 기존 방식과의 충돌로 인해 난관에 부딪힐 가능성도 있으나, 최근 IT 산업 및 인터넷 경제의 발전, 중국 내 혁신역량 강화 등과 맞물려서 성공적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높음.
- 중국의 제조업 발전정책으로 인한 변화는 IT, 조선, 자동차, 화학, 기계, 철강 등 주요 제조업에서 중국과의 경쟁 혹은 협력 관계에 있는 한국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중국제조 2025’가 제시한 주요 신성장산업은 차세대 IT, 신에너지 자동차, 신소재, 고기술선박 및 해양공정장비 등으로 한국의 미래 성장동력 산업과 중복되고 있으므로 향후 우리 기업과의 경쟁이 격화될 것으로 예상

- 특히 중국의 미래 투자가 집중될 산업이 중국의 보호주의적 산업 및 무역정책과 맞물릴 경우, 향후 공급과잉을 유발하고 글로벌 경제 및 한국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 필요
 - 반면 관련 정책에 따라 중국의 제조업과 정보화 산업(IT, 인터넷,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이 적극적으로 결합할 경우 관련 소프트웨어와 장비 등의 수요가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한국기업에 새로운 기회가 열릴 가능성도 있음.
- 또한 '중국제조 2025'는 중국 제조업의 발전 현황을 반영한 정책이되 향후 발전방향을 이끌어갈 정책이기 에 이를 이해하기 위해선 중국 제조업 발전 상황과 추세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선행되어야 함.
 - 중국 제조업 산업데이터, 무역데이터, 글로벌 가치사슬(GVC) 데이터 등 다양한 데이터와 방법론을 사용하여 중국 제조업의 발전 현황과 추이를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음.
 - 중국 제조업의 현 상황, 발전전망, 제조업 발전정책(중국제조 2025)의 내용을 분석하고 한국에 대한 시사점 및 한국의 대응방안을 도출할 필요
 - 중국 제조업의 발전과 정책이 한국에 가져올 기회요인과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대응책을 마련함으로써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고 새로운 기회를 발굴해야 함.

2. 조사 및 분석 결과

1) 중국제조 2025 분석

- [정책 목표] 중국정부는 2015년부터 혁신을 통한 제조업 경쟁력 강화와 첨단 제조업 육성을 바탕으로 '제조대국'에서 '제조강국'으로의 도약을 목표로 하는 '중국제조2025'를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데, 제조업과 ICT 융합, 제조업과 서비스업 융합을 통해 산업간 경계를 허물고 '스마트 제조'와 '서비스형 제조'의 발전 지향(표 1 참고)

표 1. '중국제조 2025'의 추진 방향과 핵심 내용

항목	주요 내용				
	혁신능력 제고 (创新驱动)	품질 개선 (质量为先)	친환경 성장 (绿色发展)	산업구조 최적화 (结构优化)	인재 육성 (人才为本)
5대 기본 방침	① 제조업 혁신능력 제고	- 핵심기술 R&D 지원 확대, 과학기술 성과 운용 활성화 - 국가 제조업 혁신 및 표준 관리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② 정보화와 공업화 융합 추진	- 설비 개발·제조 공정의 스마트화 추진 - 인터넷과 제조업의 결합을 통한 혁신적 제조 인프라 구축			
	③ 공업 기초역량 강화	- 핵심 기초부품·선진 기초공법·핵심 기초소재·기초 산업기술 등 '4대 기초(四基)' 역량 발전 - 완제품 기업과 공업 기반산업 기업 간 협력 추진			
	④ 품질 강화·브랜드 구축	- 제품 품질 및 기술 관리 시스템 개선 - 자동차, 고정밀 수치제어 기계, 궤도 교통 설비, 대형 장비, 핵심 원자재, 전자부품 등의 품질 제고 - 제조업 브랜드 창출			
	⑤ 녹색제조 전면 추진	- 제조업 전반의 친환경화 추진 - 재제조(Remanufacturing) 산업 중점 발전			
	⑥ 10대 중점 영역 발전 추진	- 10대 핵심 산업 중점 육성			
	⑦ 제조업 구조조정 심화	- 생산능력 과잉 산업에 대한 관리 강화 - 대·중·소 기업간 협력 추진			
	⑧ 서비스형 제조업(服务型制造) · 생산형 서비스업(生产性服 务业) 발전 추진	- 생산형 제조를 서비스형 제조로 전환 추진 - 제조업과 밀접한 생산성 서비스업 연계 발전			
	⑨ 제조업 국제화 발전 수준 향상	- 외국인투자 유치 및 기업의 해외진출 가속화 - 일대일로와 연계하여 해외 제조업 협력단지 구축			
9대 주요 임무	차세대 정보기술 (新一代信息技术)	- 집적회로 및 전용 설비 - 정보통신 설비 - 운영체제 및 공업용 소프트웨어			
	고정밀 수치제어 공작기계·로봇 (高档数控机床和机器人)	- 고급 NC 공작기계 - 로봇(공업용, 특수/서비스형 로봇 등)			
	항공우주 장비 (航空航天装备)	- 항공설비(대형/간선항공기, 헬기, 무인기 등) - 우주설비(탐재 로켓, 신형 위성, 유인 우주기술 등)			
	해양장비·첨단 선박 (海洋工程装备及高技术船舶)	- 해양 엔지니어 설비 기술 - 첨단 선박기술			
	선진 궤도 교통 설비 (先进轨道交通装备)	- 신소재, 신기술, 신가공 응용 - 안전관리 및 에너지 절약 시스템 - 제품의 경량화, 모듈화, 시스템화			
	에너지 절약·신에너지 자동차 (节能与新能源汽车)	- 전기자동차, 연료전지 동력 자동차, 저탄소 자동차 - 핵심 기술(고효율 내연기관, 첨단 변속기 등)			
	전력 설비(电力装备)	- 고효율 석탄전력 정화설비, 수력 및 원자력 발전, 중형 가스터빈 등 - 신재생에너지, 에너지 저장설비 등			
	농업기계 장비(农机装备)	- 첨단 농기구 및 핵심 부품			
	신소재(新材料)	- 특수 금속, 고성능 구조재료, 기능성 고분자재료 등			
	바이오 의약·고성능 의료기기 (生物医药及高性能医疗器械)	- 바이오 의약(중대질병 치료약품, 바이오기술 응용 신의약품 등) - 고성능 의료기기(영상설비, 의료용 로봇 등) - 첨단 의료기술(3D 바이오프린터, 다기능 줄기세포 등)			

자료: 中国政府网(2015. 5. 19), 「国务院关于印发《中国制造2025》的通知」, http://www.gov.cn/zhengce/content/2_015-05/19/content_9784.htm(검색일: 2017. 9. 2).

- [위협요인] 첫째, '중국제조 2025'는 제조업의 수입대체화 및 세계시장 점유율 확대를 추진하면서 중국 수출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한국에 타격을 줄 수 있고, 둘째, '중국제조 2025'가 중국 로컬 기업에 제공하는 우대 혜택과 재정지원 강화가 해외기술 및 기업 인수자금으로 활용되면서 국내기업 보호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셋째, ‘중국제조 2025’가 특정 기술과 산업에 과잉투자, 중복투자로 이어지면 세계적 과잉생산·과잉설비, 가격폭락 등 문제를 야기할 수 있고, 넷째, 중국이 ‘중국제조 2025’를 통해 신성장 첨단산업을 육성하면서 외국기업의 국내시장 진출을 막는 정책을 쓴다면 새로운 통상 분쟁이 늘어나고 외국기업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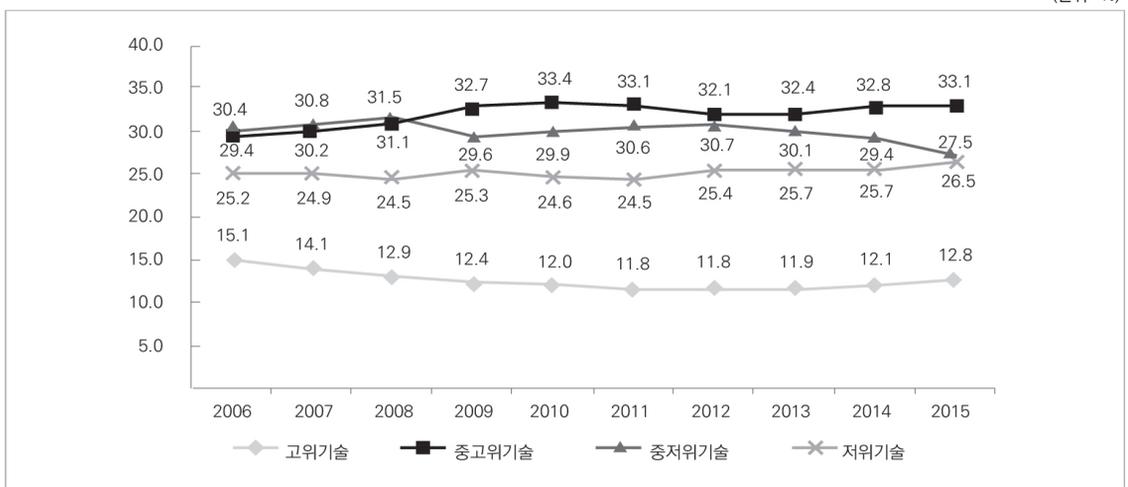
- [기회요인] 첫째, ‘중국제조 2025’는 신성장 첨단산업－차세대 정보기술, 신에너지 자동차, 고성능 공작 기계·로봇 등－을 중심으로 방대한 ICT 분야의 소프트웨어와 장비 수요를 창출할 수 있고, 둘째, ‘중국 제조 2025’의 대외개방 확대 정책－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의 외자도입, 안전·투명·예측 가능한 경영환경, 무역 원활화, 개방을 통한 철강·화학·선박 산업 조정, 고속철도·전력장비·건설장비 해외진출 지원－이 제시되면서 외국기업의 신(新) 비즈니스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셋째, 중국의 각 지역은 각각 ‘중국제조 2025’를 추진하고 있는데 지역별로 제조업 발전정도, 비교우위 특화산업, ‘중국제조 2025’의 핵심 산업에 차이가 있어서 지역별로 다양한 분야에서 국제협력기회가 창출될 가능성이 높음.

2) 산업·무역 데이터 분석

- [발전 현황] 중국 제조업은 고기술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육성 및 투자 정책에 힘입어 중고위기술, 고위기술 제조업 분야에서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발전
 - 산업데이터 분석으로 보면 중고위기술 업종의 매출액 기준 비중이 확대되고 고위기술에 대한 R&D 투자 지출이 지속 증가(그림 1 참고)

그림 1. 중국 제조업 기술수준별 매출규모 비중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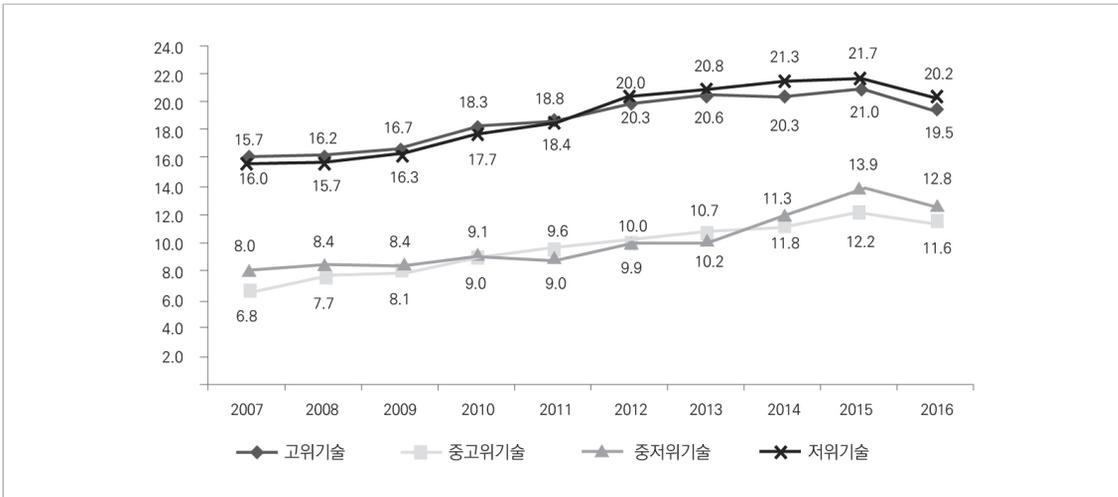


주: 비중은 각 기술수준별 산업 매출액이 중국 전체 제조업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함.
 자료: 중국국가통계국(<http://www.stats.gov.cn/tjsj/>, 검색일: 2017. 7. 15) 활용하여 저자 작성.

- 무역데이터 분석에서는 중국의 수출 비교우위가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범용 중간재 생산·조달 확대에 따른 수입대체도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최근 고위기술 업종을 중심으로 글로벌 시장점유율 지체가 나타남(그림 2 참고).

그림 2. 중국 제조업의 기술수준별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 추이

(단위: %)



주: 비중은 세계 수출시장에서 중국의 제조업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ITC Trademap(<http://www.trademap.org/tradestat/index.aspx?proceed=true&tradetype=l&reporter=156>, 검색일: 2017. 10. 10) 활용하여 저자 작성.

- [시사점] 첫째, 최근 중국 제조업 발전 추이와 ‘중국제조 2025’를 보면 전통 제조업이 아닌 중고위기술 및 고위기술 분야와 4차 산업혁명 연관 신산업 등의 발전이 두드러져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은 앞으로 이들 산업에서 중국과의 경쟁에 본격적으로 노출될 것으로 보이고, 둘째, 기술수준별로 볼 때 최근 중고위기술·중저위기술 업종에서 중국의 약진이 두드러지지만 고위기술 업종에서는 정체 혹은 지체되는 모습으로 과연 중국기업들이 고위기술 업종에서 빠르게 자생적 기술 및 제품 경쟁력을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

3) 글로벌가치사슬(GVC) 분석

- [발전 현황] 중국은 제조업에서 총수출의 해외부가가치 비중은 점차 감소하면서 해외 의존도가 낮아졌고 수직특화를 중심으로 GVC 참여가 감소하였으며, 최종재의 해외부가가치는 감소한 반면 중간재의 해외부가가치는 증가하여 GVC 위상이 후방→전방으로 향상되는 모습(표 2 참고)

표 2. 최종재 및 중간재 해외부가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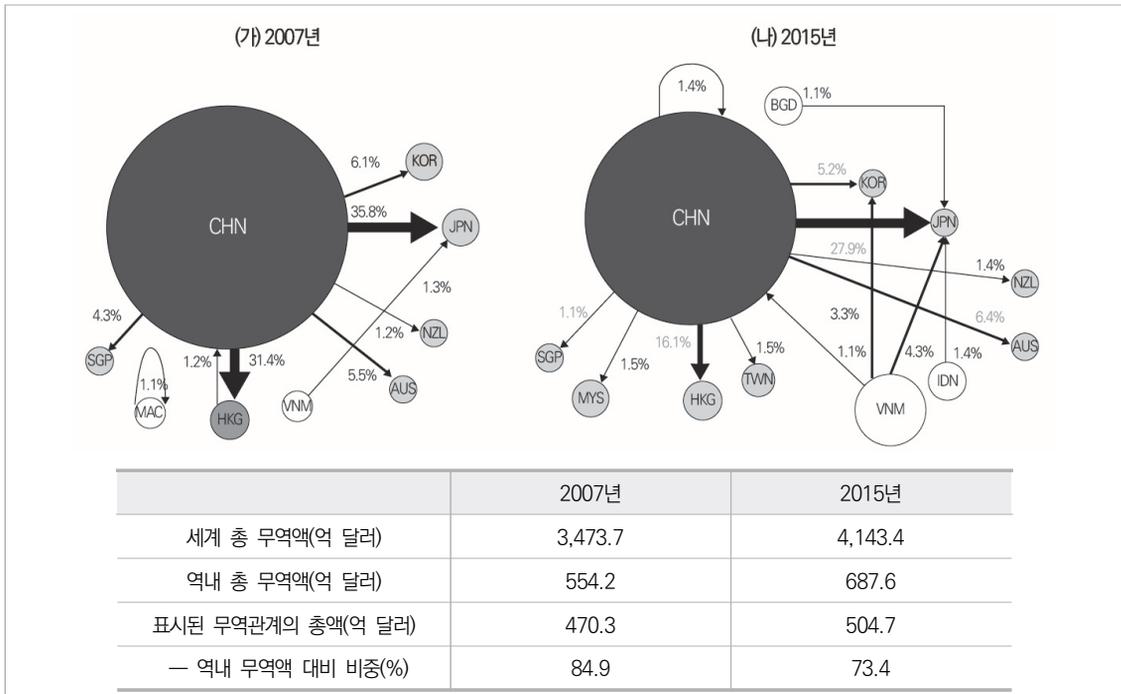
(단위: 비중, %)

연도	수직특화	해외부가가치_최종재	해외부가가치_중간재	해외원천_이중상계항
2000	17.36	31.46	46.67	21.86
2005	25.58	30.97	45.31	23.72
2008	22.67	31.67	43.65	24.67
2011	21.79	33.77	42.41	23.82
2015	16.19	30.67	51.27	18.06

주: 수직특화는 총수출 대비 비율이고, 그 외 해외부가가치_최종재, 해외부가가치_중간재, 이중상계항은 수직특화 대비 비율임.
 자료: ADB, Key Indicators for Asia and the Pacific 2016을 활용하여 저자 계산.

- 2000년대 초부터 국내 중간재 비중이 업종별로는 섬유제품, 의복·가죽 제조업, 컴퓨터·전자·광학제품 제조업에서, 기술별로는 중상기술 제조업에서 크게 증가
 - 단 중국의 경제성장으로 인한 중간재 수입확대가 중간재 대체보다 더 커서 한국의 대중국 중간재 수출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나타나지 않고 있고 오히려 주요 산업에서 GVC 내 한국의 위상이 중국보다 상대적으로 더 상승
- [산업별 격차 존재] 섬유·의류와 휴대전화 산업에서는 대부분의 교역관계가 중국과의 수출 또는 수입을 통해 연결되는 중국 중심성을 보여주었으나(그림 3 참고) 자동차 산업에서는 중국이 여전히 GVC의 선도자로 자리매김하지 못하고 있는 산업별 격차 존재
- 중국의 중심성은 다른 아시아 국가들이 중국을 거치지 않는 새로운 역내 교역관계를 형성하면서 2007~15년 사이 약화되고 있었는데, 의류 분야에서는 한국-베트남, 일본-베트남, 일본-인도네시아, 일본-방글라데시 간, 섬유에서는 한국-인도네시아·베트남, 그리고 인도와 방글라데시, 휴대전화에서는 베트남과 인도에 대한 한국의 부품수출 증가

그림 1. 아시아 역내 교역 네트워크 변화: 의류



주: 1) 전체 역내 무역총액의 1% 이상인 교역관계만 표시. 원의 크기는 역내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반영(1% 이하는 동일).

2) AUS(호주); BGD(방글라데시); CHN(중국); HKG(홍콩); IDN(인도네시아); JPN(일본); KOR(한국); MAC(마카오); MYS(말레이시아); NZL(뉴질랜드); SGP(싱가포르); TWN(대만); VNM(베트남).

자료: UN Comtrade.

- [시사점] 첫째, 역내교역 네트워크의 구조에서 산업간 뚜렷한 차이는 중국의 부상에 대한 대응에서도 산업 간 차별적인 전략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둘째, 중국의 중심성이나 가치사슬상의 역할 확대가 상당 부분 외자기업에 의해 주도되면서 중국 로컬 기업의 중심적 역할이나 고부가가치 활동으로의 이동을 반드시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셋째, 중국을 주요 축으로 하지 않는 역내 신교역망의 등장은 동북아시아를 중심으로 형성되었던 한·중·일 중심의 분업구조가 동남아시아나 남아시아 등 아시아 역내의 다른 지역까지 지리적으로 확장되면서 역내 분업구조가 새롭게 재편되고 분기(分岐)되고 있음.

3. 정책 제언

1) '중국제조 2025'의 기회요인과 한국의 활용방안

- ① 중국의 신성장산업 육성으로 창출될 신(新) 수요에 부응하는 맞춤형 중간재를 제공할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 [기회요인] '중국제조 2025'의 기본 방향은 제조업과 정보화의 융합, 핵심 산업은 차세대 정보기술, 신에너지 자동차, 고성능 공작기계·로봇 등으로 방대한 ICT 분야의 소프트웨어와 장비가 필요
 - [활용방안] 한국은 차세대 정보기술, 에너지절약·신에너지자동차, 고효율전력설비, 첨단농업기계장비, 신소재 등 '중국제조 2025'의 10대 핵심 산업 발전 현황, 방향, 전망을 파악하여 이에 부합하는 고품질, 고효율, 국제표준의 관련 부품, 반제품, 자본재 등 개발 추진
- ② 중국의 대외개방 확대로 증가할 외국기업의 사업기회를 활용하여 재중(在中) 창업, 대(對) 중국기업 선제 인수합병, 지분투자, 합작투자 등 모색
 - [기회요인] '중국제조 2025'는 대외개방 확대를 표방하면서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의 외자도입, 안전·투명·예측 가능한 경영환경, 무역 원활화 등의 정책 제시
 - [활용방안] 신산업에서 유망한 중국기업들에 대한 선제 인수합병(M&A), 지분투자, 합작투자 등으로 중국 시장에 진출하거나 중한혁신창업단지 등에서 재중(在中) 창업 후 중국기업과의 협력 추진
- ③ '중점협력지역 및 분야'를 선정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진출 모색
 - [기회요인] 중국의 각 지역은 제조업 발전정도, 비교우위 특화산업, '중국제조 2025'의 핵심 산업에 차이가 있어 지역별로 여러 제조업 분야에서 국제협력 가능
 - [활용방안] 대한민국 경제협력의 신 플랫폼을 조성하고 있는 지린성 창춘, 중한혁신산업창업보육파크가 조성된 쓰촨성 청두, 삼성전자와 현대차가 진출해 있는 산시(陝西)성 시안, 충칭 등 경제협력 수요가 크되 경쟁이 적은 지역을 중점협력지역으로 선정하여 전략적 진출 모색

2) '중국제조 2025'의 위협요인과 한국의 대응방안

- ① 중국의 중간재 경쟁력 강화에 대비한 제3국 시장 개척을 통한 거래선의 다변화, 중국 소비재 시장 개척, 시장 변화에 맞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구축
 - [위협요인] 중국의 수입대체화 및 글로벌 시장 점유율 확대로 대중국·대세계 수출에 경고등이 켜지면서 국내 제조업 기반이 흔들릴 가능성 존재
 - [대응방안] 전통산업에서의 기술경쟁력 강화, 중국 소비재 내수시장 개척, 제3국 시장개척을 통한 거래선 다변화, 신성장 산업에서의 기술선도 및 제품경쟁력 확보, 시장 변화에 맞는 신비즈니스 모델(in-frame 전략: made in china가 아닌) 개발, 일본 및 독일의 경쟁력 유지 사례 연구 필요
- ② 중국정부의 적극적 M&A 지원으로 인한 국내 기술·기업 유출 가능성에 대비하여 중국의 직접투자는 독려하되, 전략산업, 기술, 인력은 보호하는 정교한 정책 구상
 - [위협요인] 중국의 많은 해외 M&A가 실제로는 중국정부의 재정지원이나 국유기업의 주도로 성립되면서 기술 유출·기업 인수에 대한 우려 증가
 - [대응방안] 중국의 직접투자는 독려하되, 전략산업, 기술, 인력은 보호하는 정교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미국과 유럽의 사례를 참조하는 한편, 미국과 유럽이 중국의 M&A에 대한 경계감이 높은 상황을 이용하여 한국이 이들 지역의 유망 스타트업 기업들을 선제적으로 M&A하여 기술 습득, 선진국 시장 진출, 중국 의존도 감소를 노리는 전략 가능
- ③ '중국제조 2025' 주요 산업들의 미래 공급량을 예측하여 향후 글로벌 시장과 한국에 미칠 영향에 대한 대응책 마련
 - [위협요인] 중국이 향후 '중국제조 2025'를 통해 특정 산업에 과잉투자, 중복투자를 하면서 세계시장에서 공급과잉, 가격폭락 등 시장교란을 초래할 가능성 상존
 - [대응방안] '중국제조 2025'의 주요 산업별로 생산량을 예측하고 중국의 과잉생산으로 인한 시장왜곡 기존 사례를 분석하여 장기 대응책을 산업별로 수립(시나리오별 대응책 마련)

- ④ ‘중국제조 2025’ 시행에서 중국의 각종 로컬 기업에 대한 지원을 모니터링하면서 WTO 제소 준비 등 대처방안을 미리 모색
- [위협요인] 로컬 기업에 제공하는 우대혜택, 재정지원, 무역장벽 등으로 시장왜곡, 외국기업 경쟁력 약화, 새로운 통상분쟁, 상대국 맞대응으로 인한 보호주의 확산 우려
- [대응방안] 공식문건 분석, 현지조사, WTO 다자감시 메커니즘 등을 활용하고 중국의 분쟁 사안을 검토하여 대상품목과 지원형태, 핵심 쟁점, 중국의 대응논리 등에 관한 자료를 축적하며, 분쟁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WTO 제소, 상계관세조치 등 적절한 대응책을 미리 강구

3) 중국 제조업의 산업 및 무역 구조변화와 한국의 대응방안

- ① 중국의 제조업 업종별, 기술수준별로 발전수준의 편차가 존재하므로 선도전략과 편승전략으로 나누어 업종별·제품별·기술수준별로 차별화된 대응전략 구상
 - 선도전략은 핵심 기술력을 보유하여 장기적으로 산업 주도권을 유지할 수 있는 영역에서 가능한 전략으로 한국기업은 중국기업이 추격할 수 없도록 과감한 투자를 지속하고 시장에서는 우월한 지배력을 이용하여 공급과 가격을 조정하면서 후발자를 어렵게 만들고 산업을 주도
 - 편승전략은 중국이 주도하는 신성장산업에서 발생할 틈새시장을 노려서 중간재 등을 공급함으로써 중국 제조업 성장의 과실을 공유하는 전략으로 중국이 산업 전체의 주도권을 쥐고 있지만 한국기업이 들어갈 일정한 영역이 존재할 경우 가능
 - 전략 구상을 위해선 중국 제조업 성장 과정을 업종별·제품별·기술수준별로 면밀히 분석하고 미래를 전망하는 일이 전제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정부 관련부처, 민간 연구기관, 관련 업체의 종합적 항시적 협동 연구가 필요
- ② 중국 제조업의 글로벌 시장점유율이 일정 한계에 도달한 상황에서 중국 제조업의 점유율 지체를 한국 점유율 상승으로 만들 수 있도록 대응방안 연구
 - 실제 중국 제조업 발전이 고위기술 업종을 중심으로 일정한 한계에 부딪히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고 향후 전망은 어떤지 분석한 후 이를 활용하여 한국의 글로벌 시장점유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해야 함.

- ③ 중국의 중간재 생산·조달 확대에 따라 수입대체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나 산업별, 제품별 편차가 크므로 각각에 대한 맞춤형 대응전략 마련
- 대중국 수출에서 장기간 우위 유지가 가능한 중간재, 중기간 유지 가능한 중간재, 단기 유지도 어려운 중간재로 분류하고 각각 세부전략을 모색
- 중국의 수입대체화가 완벽히 폐쇄적인 중국만의 공급사슬을 만들 수는 없고 전처럼 핵심 부품과 기술은 여전히 외국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이 중간재의 대중 수출을 유지하는 유일한 장기적 해결책
- 다만 제3국 시장개척을 통한 거래선 다변화, 중국 소비재 시장개척 등도 함께 고려하되, 제3국 시장으로 는 인도, 아세안, 유럽, 북남미 등도 폭넓은 시야를 갖고 개척해야 함.
- 성장하는 중국 내수시장 공략을 위해 중국의 고령화에 대비한 의료기기, 중국환경 악화에 따른 환경 관련 제품 등을 새로운 수출품으로 만드는 작업도 병행 필요

4) 중국 제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GVC) 위상 변화와 한국의 대응방안

- ① 중국의 GVC 위상상승을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서 모방 불가능한 블랙박스식의 독자적 기술을 확보하여 중국의 기술 추격을 차단하는 혁신 추진
- 중국의 GVC 위상상승에도 한국산 중간재 수요 확대가 중간재 대체보다 크게 나타나 한국의 대중 중간재 수출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
- 지속적 혁신을 통해 신산업 및 신제품을 개발하고 차별화된 기술력을 유지하면서 경쟁력을 유지해주는 핵심기술과 기술인력을 적절히 보호한다면 중국의 향후 GVC 위상 상승이 오히려 기회가 될 가능성 다대
- ② 중국의 GVC 주도성 수준에 산업간 차이가 존재하므로 향후 신성장산업에서 중국 중심의 GVC가 어떻게 형성될지 연구하여 참여전략 수립
- 역내 제조업 GVC는 중국이 주도할 가능성이 크지만 산업별, 제품별 특성에 따라서 중국의 중심성 수준에 는 차이가 클 것이기에, 특정 미래산업에서 중국이 GVC에 어떻게 결합할 것인지를 예측하고 산업별 전략 수립

- ③ 중국의 GVC상의 역할 확대가 상당 부분 외자기업에 의해 주도하기 때문에, 향후 중국 중심의 GVC 확장 국면을 한국기업이 활용하고 편승할 방안 모색
- 중국 내 투자나 중국기업과의 협력으로 현지화한다면 향후 중국 중심의 GVC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나오는 성장의 과실을 우리 기업도 공유할 수 있음.
- ④ 신남방정책의 적극적 추진을 통해 아세안(인구 6.3억), 인도(1.3억) 등 새로운 무역, 투자 시장을 개척하여 중국의 제조업 굴기에 대해 우회적 대응
- 한·중·일 중심의 분업구조가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등 다른 아시아 지역까지 확장되면서 역내 분업구조가 새롭게 재편되고 분기(分岐)되면서 중국을 주요 축으로 하지 않는 새로운 역내 교역망이 등장하면서 제3국을 생산기지이자 소비시장으로 적극 모색하는 신남방정책의 추진 당위성 제기
- 향후 신남방정책의 적극적 추진을 통해 아세안(인구 6.3억), 인도(1.3억) 등 새로운 무역, 투자 시장을 개척하여 중국의 제조업 굴기에 대한 우회적 대응 필요

5) 기타 대응방안

- 산업별, 업종별, 제품별로 기술 특성, 한국과 중국의 발전수준 등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부가 모든 정보를 갖고 일률적인 정책을 고안하기는 어렵기에 정책 설계부터 각 업계, 산업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상향식(bottom-up)으로 섹터 맞춤형 정책을 입안할 필요
 - 특정 신성장산업의 R&D 투자를 고려할 때 정책 설계, 시행 단계부터 민간기업을 참여시켜 자연스럽게 기술을 습득하게 하고 빠른 제품개발로 유도하는 방식
- ‘중국제조 2025’와 4차 산업혁명 등에 조응하는 장기산업정책을 추진할 중립적이고 독립적 컨트롤타워를 구축할 필요
 - 가칭 ‘중국제조업발전 대응위원회’를 ‘4차 혁명 위원회’나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의 항시기구로 설립할 필요성 존재 **KIEP**